

## 일본 세계시장점유율 1위 품목 감소

일본경제신문 발표에 따르면 엔고, 동북대지진, 태국 홍수사태, 신흥국 시장개척 지연 등으로 일본 기업들의 세계시장점유율 1위 품목이 11개에서 9개로 줄어 한국(8개 품목)과 차이를 좁힌 것으로 나타남

### □ 한·중·일기업의 세계시장점유율 변화

- 12년 7월 24일 발표된 2011년 「주요 상품·서비스 세계시장점유율 조사」에 의하면 조사대상 50개 품목의 세계시장점유율에서 일본 기업의 1위 제품은 2010년보다 2개 감소한 9개 품목으로 조사
  - 다관절로봇, 카메라는 점유율을 늘어났지만 자동차는 저하
  - 전기·IT(정보기술)분야는 부진했으며, IT에 강한 미국은 19개 품목, 거대한 국내 시장을 가진 중국은 6개 품목으로 상위품목이 증가

### □ 일본 기업들의 1위 품목은 감소 추세

- 이번 조사에서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1위로 상승한 것은 리튬이온전지(파나소닉) 1개 품목이었음
  - 산요전기를 인수한 파나소닉이 점유율 23.5%로 0.3% 차이로 삼성 SDI(23.2%)를 추월

- 자동차는 동북대지진과 태국홍수사태 영향으로 1위에서 3위로 하락
- Plasma panel, 원유수송량도 1위에서 하락하여, 일본의 1위 품목은 10년의 11개 품목에서 9개로 축소

〈일본의 세계시장점유율 1위 품목〉

품 목		1위	2위
모노즈쿠리	산업용차량	도요타자동차 18.2%(△0.6)	키온(독일) 14.8%(△1.6)
	다관절로봇	파낙 18.0(3.7)	ABB(스위스) 12.8(2.4)
	수치제어장치	파낙 55.0(△5.0)	Simense(독일) 22.0(2.0)
	자동차수송대수	日本郵船 17.8%(0.1)	미쓰이상선 14.8(0.8)
스리아와세	비디오카메라	소니 44.0%(1.3)	파나소닉 18.0%(1.1)
	디지털카메라	캐논 18.8%(0.3)	소니 17.1%(△0.4)
	게임기	닌텐도 41.3%(△6.8)	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 38.9(0.7)
고기능부품	백색LED	닛치아화학공업 28.8%(1.0)	삼성LED 13.6(0.0)
	리튬이온전지	파나소닉 23.5%(17.5)	삼성SDI 23.3(3.5)

- 지진재해, 엔고, 신흥국시장개척 지연문제로 영향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모노즈쿠리를 기반으로 한 생산설비, 설계·생산에 경험, 노하우가 필요한 정밀기계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
- 자동차공장의 조립 라인 등에 사용되는 다관절로봇에서는 1위업체인 파낙이 점유율을 확대
- 포크리프트 등의 산업용차량에서는 도요다자동차(豊田自動織機)가 엔고 상황에서도 1위를 유지했고, 1~3위를 독점한 디지털카메라에서도 1위 캐논과 3위 니콘이 점유율을 확대

- 이번조사에서 50개 품목의 상위 5위 이내에 진입한 일본 업체는 63사로 미국(74사)에는 미치지 못했으나, 한국(32사), 중국(24사)과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
- 한국기업은 8품목에서 1위를 기록하였는데, 특히 스마트폰, TV 등 디지털산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, 이중 삼성그룹이 7개 품목을 차지
  - \* 닛케이신문은 반도체 등 거액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경영능력과 빠른 의사결정이 강점이라고 평가
- 미국은 PC, 다기능휴대단말기 등 IT를 중심으로 10년 보다 1개 품목이 증가 한 19개 품목에서 1위를 차지
- 중국은 선박, 가정용 에어컨, 냉장고, 세탁기, 담배, 태양전지 등 6개 품목에서 1위를 기록
  - \* 닛케이신문은 12년 이후 중국경제가 감속하면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

## □ 일본 내 시장점유율 13개 품목에서 1위가 교체

- 동일본대지진 재해와 태국 홍수가 국내생산, 판매에 크게 영향을 끼쳐 1위 교체가 없었던 강재나 자동차 등에서도 1위가 점유율을 떨어뜨렸음
- 에틸렌분야는 지난 10년간 1위 자리를 고수해 왔던 미쓰비시화학의 주력공장인 가시마사업소(이바라키현)가 5월까지 조업을 중단하여 미쓰이화학에게 추격당해 2위로 전락
- 승용차는 지진재해와 태국 홍수로 생산이 중단된 데다가, 부품조달에 차질을 빚는 등 11년 국내 판매대수는 18.5% 줄어든 238만6036대로 대폭 축소

- \* 도요타는 주력자동차의 생산회복 지연으로 점유율이 4.5% 하락한 45%
- \* 부품조달의 해외비중을 확대시킨 닛산은 회복이 빨라 피해가 컸던 혼다를 추월하여 점유율이 1.3% 증가한 16.4%

## □ 시사점

- 일본 기업은 전통적으로 산업기계, 인프라 등에서는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, 디지털IT분야의 경쟁력 상실은 가속화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
- 일본이 취약한 IT나 소프트분야는 일본 기업들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어 일본이 과거의 성공경험이나 기술 중시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
-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모노즈쿠리분야에 대해 △단기 성과주의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개발, △한국형 모노즈쿠리 정착 등을 통해 일본의 기술과 경영자원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요구됨

## 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2.7.29)